

단풍길 걸으며 선열의 뜻 새기다

학생독립운동 80주년 기념 시민건강걷기대회

가족·직장동료·학생 등 2,000여명 참가 성료

독립운동정신을 되새기는 광주시민의 힘찬 행진이 펼쳐졌다.

학생독립운동 80주년 기념 시민건강걷기대회가 1일 오전 상무시민공원에서 열렸다.

광주시·광주시교육청·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이번 대회는 선열들의 숭고한 민족·독립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오전기는 17도의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학생·시민 등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상무시민공원을 출발해 여성발전센터-서부경찰서-우미아파트-김대중센터-전천후계아트볼장을 거쳐 다시 상무시민공원으로 돌아오는 3km 구간에서 열렸으며 특별한 사고·부상 없이 모두 끝까지 도착한 '안전대회'로 마무리 되었다.

이날 개회식에서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은 대회

사를 통해 "학생독립운동 80주년을 기념하고 동시에 제44회 광주시민의 날을 맞이한 뜻깊은 날에 건강걷기대회를 열게돼 감회가 새롭다"면서 "세계적으로 건강비결 중독인 걷기대회를 통해 가족·직장·시민 여러분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 진행을 맡은 광주시위권협회 이석주(39) 간사는 "어제 비가 내린데다 기온도 내려가 참가자가 적지않을까 걱정했는데 되레 많은 시민들이 참가해 놀랐다"면서 "보통 걷기대회에 1천여명이 참가하면 성공적인 이번 대회에는 무려 2천여명이 참가해 당황스러울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 시민·가족 단위 출전팀 외에 직장·학교단체팀도 많았다. 특히 광주시교육청과 동부·서부교육청에서 200여명의 교원이 참가했으며 금파공고 학생 40명도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뜻깊은 대회에 함께 참여했다.

이들 학생들과 함께 참여한 이광중(42) 교사는 "대회 참가 학생들은 군 특성화사업 대상자들로서 졸업과 동시에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면서 "이 대회가 학창시절 좋은 추억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 건강한 군생활과 그들만의 꿈을 꼭 이뤄주면 한다"고 참가의미를 밝혔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대회에 가족단위 참가자들도 눈에 띄었다. 손녀 신채운(9)·지인(6)양과 함께 참가한 신상수(71·광주 치평동)·금정희(여·64) 부부는 "오랜만에 평택에서 내려온 손녀들에게 할아버지 고향에서 열리는 큰 행사를 보여주고 싶어 아침 일찍 서둘러 데리고 나왔다"고 말하며 손녀들과 파이팅을 외쳤다. 또 딸 윤창남(58)씨와 함께 출전한 83세의 심복김(광주 치평동) 할머니는 "평소 에어로빅과 걷기로 건강을 지켜왔기에 끝까지 걸을 수 있다"면서 주먹을 불끈 쥐며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 초등생 최지혜·장수연·정수아(이상 치평초 4년)는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서 우리끼리 참가했다"면서 "학생독립운동에 대해선 잘 모른다. 하지만 대회가 끝나면 선생님 혹은 부모에게 물어봐 주위 친구들에게도 꼭 알려주겠다"고 웃음 띤 얼굴로 걷기에 참여했다.

이날 참가자에게는 다양한 기념품 등이 제공됐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1일 상무시민공원 일대에서 열린 학생독립운동 80주년 기념 시민건강걷기대회에 참가한 2천여명의 시민들이 곱게 물든 단풍 길을 지나면서 도심 속 가을 정취를 만끽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챔피언의 입맞춤

열짱 골퍼 최나연 LPGA 두번째 우승... 6위 신지애 '올해의 선수 포인트' 141점 1위 유지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우승 가뭄을 끝냈던 최나연(22·SK텔레콤)이 고국 무대에서 다시 한번 우승상을 받았다.

최나연은 1일 인천 스키야드72 골프장 오션코스(파72·6천364야드)에서 열린 LPGA 투어 하나는 행-코오롱 챔피언십 마지막날 3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의 맹타를 휘두르며 합계 10언더파 206타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최나연은 평평한 접전이 벌어지던 18번홀(파5)에서 세번째 샷을 홀 바로 옆에 붙여 버디를 잡아내 챔피언스에서 동반 플레이를 펼친 청아니(대만), 마리아 요르트(스웨덴, 이상 9언더파 207타)를 1타차로 따돌렸다.

지난 해 LPGA 투어에 데뷔했지만 우승없이 한 해를 보냈던 최나연은 지난 9월 삼성월드챔피언십에서 첫 우승을 차지한 뒤 고국 무대에서 펼쳐진 LPGA 투어에서 우승 세리머니를 펼쳤다.

최나연은 2007년과 2008년 연속 외국선수에게 넘겨줬던 우승컵을 다시 찾아오며 상금 22만5천 달러를 받았다.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우승

쟁은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챔피언스에서 동반 플레이를 펼친 3명의 선수들 간 대결로 좁혀졌다.

강한 바람이 부는 날씨 속에서도 청아니가 전반에 4타를 줄였고 요르트가 버디 5개를 쓸어들리며 공동 선두로 치고나갔다. 공동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최나연은 버디 3개로 1타 뒤진 3위로 뒤처졌고 좁혀진 타수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11번홀(파4)에서 버디 퍼트가 홀을 돌아나와 아쉬워했던 최나연에게 15번홀(파4)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왔다.

티샷을 페어웨이로 잘 보낸 최나연은 두번째 샷을 홀 1m 옆에 붙인 뒤 가볍게 버디를 잡아내 12번홀(파3)에서 1타를 잃은 청아니를 밀어내고 요르트와 함께 공동 선두로 올라섰다.

지난 해 우승 문턱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최나연이었지만 올해는 달랐다.

최나연은 18번홀(파5)에서 230야드를 남기고 페어웨이 우드로 친 두번째 샷을 그린 앞까지 보냈고 칩샷을 홀 한뼘도 안되는 거리에 붙여 사실상 우승을 확정지었다. /연남뉴스

이 사이 요르트는 226야드를 남기고 4번 아이언으로 친 두번째 샷을 그린 옆 워터헤저드에 빠뜨려 우승 경쟁에서 탈락했고 청아니는 버디 퍼트를 집어넣어 공동 2위로 올라선 데 만족해야 했다.

올해의 선수상을 비롯해 다관왕을 노리고 있는 신지애(21·미래에셋)는 마지막 날 버디 3개에 보기 1개를 곁들여 2언더파 70타를 쳐 합계 3언더파 213타, 6위로 대회를 마쳤다.

신지애는 비록 우승은 놓쳤지만 올해의 선수 포인트 141점을 쌓아 경쟁자인 크리스티 커(미국),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와 격차를 벌리며 1위를 지켰다. 커와 오초아는 공동 44위(6오버파 222타)로 톱10 밖으로 밀려 올해의 선수 포인트를 추가하지 못했다.

홍란(23·먼싱웨어)은 4위(6언더파 210타), 김송희(21)는 5위(4언더파 212타), 박세리(32)와 박인비(21·SK텔레콤)는 공동 7위(2언더파 214타)에 올라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연남뉴스

전미정 JLPGA투어 시즌 4승째 앤서니 김 볼보매치플레이 결승행



전미정(27·진로재팬·사진)이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IDC 오츠카 레이디스에서 시즌 네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전미정은 1일 일본 사이타마현 무사시가오카 골프장(파72·6천561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3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의 맹타를 휘둘러 합계 13언더파 203타로 아리무라 치에, 오바 미치에(이상 일본·12언더파 204타)를 1타차로 따돌리고 역전승을 거뒀다.

전미정의 우승으로 한국 선수들은 지난 주 마스터스GC레이디스에서 신지애(21·미래에셋)의 우승을 포함해 2주 연속 우승컵을 가져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JLPGA 투어 통산 한국 선수의 90번째 우승.

송보배(23)와 이은혜(27)는 공동 4위(10언더파 206타), 이지희(30·진로재팬)는 공동 10위(8언더파 208타)에 올랐다. /연남뉴스



앤서니 김(24·나이크골프·사진)이 유럽프로골프투어 볼보 월드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총상금 325만유로) 결승에 진출했다.

앤서니 김은 1일(한국시간) 스페인 카사레스의 핀카 코르테신 골프장(파72·7천380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36홀 준결승에서 로버트 앨런비(호주)를 5홀 차로 완파했다.

결승 상대는 양철 카브레라(아르헨티나)를 연장 39홀까지 가는 접전 끝에 따돌린 로스 피셔(잉글랜드)로 정해졌다. 지난날 프레지던트즈컵 마지막 날 싱글 매치플레이에서 앨런비와 만나 역시 5홀 차로 이겼던 앤서니 김은 3주 만의 재대결에서도 5홀 차로 승리했다.

앤서니 김과 피셔의 결승은 역시 36홀 경기로 열리며 우승자에게는 75만유로가 주어진다. /연남뉴스